
2021년 1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

2020. 12

※ 조사개요

1. 조사명

- 「2021년 1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」

2. 조사 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3. 조사 기간 : 2020. 11. 24. ~ 12. 16.

- 조사표 발송 및 회수 : 2020. 11. 24. ~ 12. 10.
- 조사표 집계내용 확인 : 2020. 12. 11.
- 분석 및 보고서 작성 : 2020. 12. 14. ~ 12. 16.

4. 조사 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유효 응답 업체 254개체)

5. 조사 방법

-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6. 조사 내용

- 전반적인 체감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- 최근 경제 및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

7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“100.0%”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8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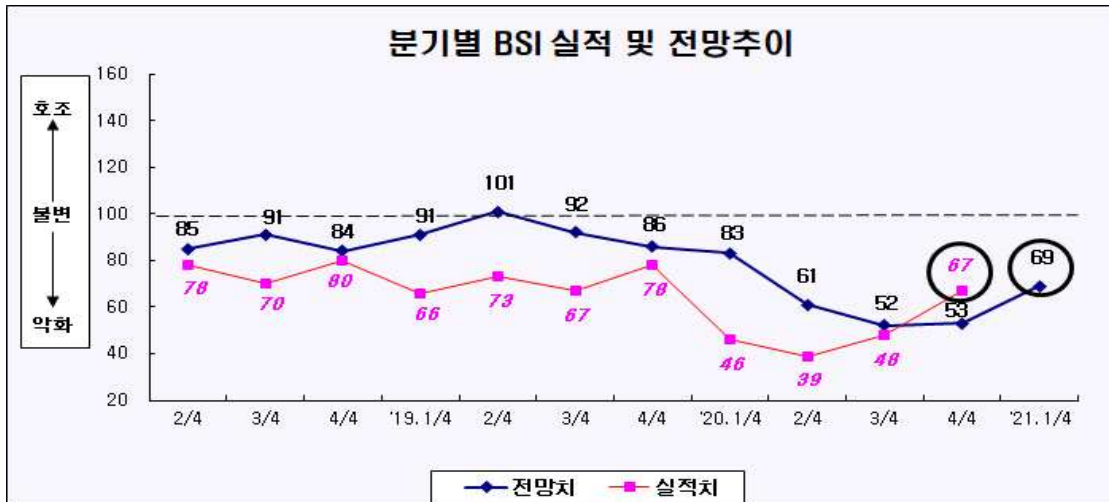
$$\text{기업경기전망지수}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 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 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 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.

1. 전반적 경기 전망

□ 제조업 BSI전망 69,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수기업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반면, 일부기업은 백신 접종 등 포스트코로나 기대감에 따른 경기호전 전망

- 2020년 4/4분기 53 → 2021년 1/4분기 69 (전분기 대비 16p 증가)
 -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주요국 경제봉쇄조치를 가장 우려
 - 원화 강세로 인한 환차손 발생 및 수출경쟁력 약화
 -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우려 등 내수 위축 심화 전망
- 2020년 4/4분기 기업경기 실적지수는 67 기록 (전분기 대비 19p 증가)



□ 조사 응답 기업 분포 경기 악화에 무게

- 전체 응답 업체 분포를 보면 경기가 2020년 4/4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.8%(101개사)인 가운데, 경기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45.7%(116개사), 경기호전을 예상한 업체가 14.6%(37개사)로 경기 호전보다는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

【2021년 1/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】

구 분	호 전	불 변	악 화	계
응답업체수(개사)	37	101	116	250
구성비(%)	14.6	39.8	45.7	100

2. 경영 부문별 전망

□ 매출, 영업이익, 자금조달 여건 부문 100 하회. 설비투자는 계획수준 유지

○ 매출(63), 영업이익(64)

- 백신 접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주요국 경제봉쇄조치 강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와 지역 제조업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. 이는 백신 접종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어 하반기 이후에 면역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
-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우려 등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내수 및 고용시장 악화 예상
- 이 외에도 원-달러 환율하락으로 인한 원화강세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및 환차손 발생 지속 우려

○ 자금조달 여건(77)

- 장기 불황에 따른 재무 및 신용도 하락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지속

○ 설비투자(100)

- 향후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상황 개선을 대비해 사업계획 수준에서 설비투자 예정

【부문별 BSI 변화】

구 분	실 적		전 망	
	'20.3/4분기	'20.4/4분기	'20.4/4분기	'21.1/4분기
체 감 경 기	48 →	67	53 →	69
매 출	45 →	70	51 →	63
영업이익	43 →	70	52 →	64
설비투자	78 →	103	79 →	100
자금조달여건	70 →	80	67 →	77

3. 주요 업종별 전망

□ **음식료품, 섬유, 의복, 신발, 화학·고무, 1차금속, 기계·장비, 자동차부품, 조선기자재 등 대부분 업종에서 경기 부진 전망**

○ **음·식료품(59)**

-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행사 취소 및 모임 감소 등 매출 감소 지속
- 학급 밀집도 감소율 준수에 따른 교대 등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급식 식자재 매출 악화 전망
- 또한 설명절 비대면 분위기 확산으로 계절적 성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

○ **섬유(60)/의복(47)/신발(53)**

- 고용 악화, 가계대출 부채증가 등 소비심리 침체로 내수시장 부진
- 환율 하락 및 제조원가 인상 등 수출 경쟁력 저하에 따른 매출 감소
- 또한 저가 수입산 및 국내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마진을 악화

○ **화학·고무(92)**

- 전방산업 침체로 수주물량은 감소하는 반면 유가 상승 등 제조원가 부담은 증가
- 다만 장기간 이어진 불황에 대한 기저효과 및 백신접종에 따른 업황 회복 기대

○ **1차금속(80)**

- 철광석 가격 급등과 중국산 철강수입가격 인상으로 국내 고로업체들도 판재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황임. 이러한 인상 분위기와 달리 전방산업 부진으로 가공업체들의 판매는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
- 다만 중국 제조업 경기 지표 호조에 따라 판재류, 주단조품 등 중국 수출 증가세를 나타냄

○ 기계·장비(50)

- 국내 경기 침체 지속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추구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로 매출 부진
- 주요 수출국(미,중,일)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출장제한 등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 수출 애로 지속

○ 자동차·부품(78)

- 친환경차 및 신차 중심으로 내수 판매 호조세를 유지해왔으나 완성차(기아차, 한국GM 등) 노사갈등으로 인한 부분파업 등 자동차 생산 감소로 부품 공급 차질 발생
- 또한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감면효과 소멸로 내수판매 위축 우려
- 르노자동차의 로그 위탁생산 중단 이후 판매부진에 따른 생산량 조정책(휴업, 한시적 1교대 등) 지속으로 지역 부품업체 매출 타격 심화

○ 조선·기자재(67)

- 최근 대형조선사의 연이은 선박 수주소식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수주실적 저조에 따른 기자재 매출 감소 지속(선박수주 후 기자재 발주까지 시차 발생)
- 또한 대형조선사의 수주 선가회복 미진으로 인한 납품단가 마진을 하락,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대금 환차손 발생 등 영업이익 악화
- 지역 대표조선소인 한진중공업의 매각 이슈에 따른 영도조선소 부지 개발 우려 등으로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

【 주요 업종별 BSI 변화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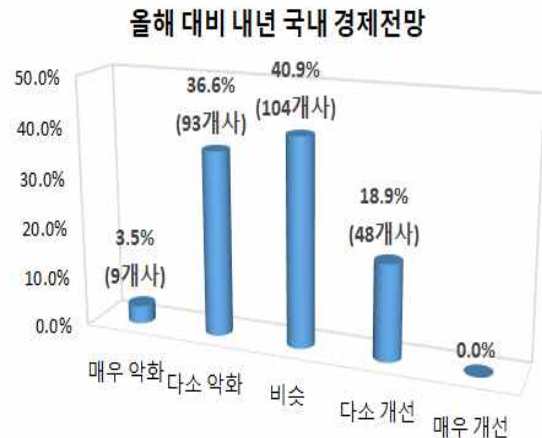
구 분	실 적		전 망	
	'20.3/4분기	'20.4/4분기	'20.4/4분기	'21.1/4분기
음 식 료 품	53	59	40	59
섬 유 제 품	40	60	33	60
의 복 · 모 피	27	47	40	47
신 발 제 품	40	27	40	53
화 학 · 고 무	70	68	83	92
제 1 차 금 속	36	68	56	80
조 립 금 속	55	60	55	70
전 기 · 전 자	35	60	70	100
기 계 · 장 비	36	81	52	50
자 동 차 · 부 품	40	88	40	78
조 선 · 기 자 재	60	81	53	67

4. 기타 경영사항

□ 2021년 국내 경제 전망

○ 응답업체의 40.9%, 내년 경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

- 내년도 국내 경제흐름에 대해 지역기업은 올해와 비슷할 것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.9%(104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“다소 악화” 36.6%(93개사), “다소 개선” 18.9%(48개사), “매우 악화” 3.5%(9개사)이며 매우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업체는 전무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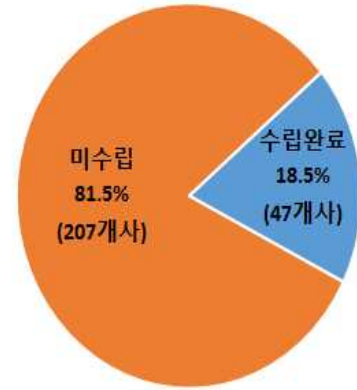
- 이는 연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중돼 더욱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보거나 백신접종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로 경제 상황이 더이상 나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등 다양한 시각차 존재하기 때문

□ 2021년 지역기업 사업계획

○ 지역기업 10곳 중 8곳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조차 못해

- 지역기업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수립하였다고 응답한 업체가 81.5%(207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수립하였다고 응답한 업체는 18.5%(47개사)에 불과

지역기업내년도사업계획수립현황



- 또한, 사업계획 미수립 업체 중 74.9%(155개사)는 수립 중에 있으며, 나머지 25.1%(52개사)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응답함

- 이는 코로나19 등 올해 현안대응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시장전망이 불투명해 매출 목표 및 사업전략 수립에 차질을 겪고 있기 때문임

○ 응답업체 68.1%가 내년도 사업계획 보수적 수립

- 공격적 사업계획을 수립한 응답업체는 31.9%에 불과

-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수립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 경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

□ 2021년 지역기업 신규채용 계획

○ 과반수가 내년도 신규채용은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응답

- 응답업체의 52.8%(134개사)가 내년도 신규채용은 올해 채용 수준보다 줄일 것이라고 응답. 다음으로는 “올해와 비슷” 43.3%(110개사), “올해보다 늘릴 것” 3.9%(10개사)로 증가보다는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

-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수주 부진, 생산 감소를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신규채용을 늘릴 여력이 없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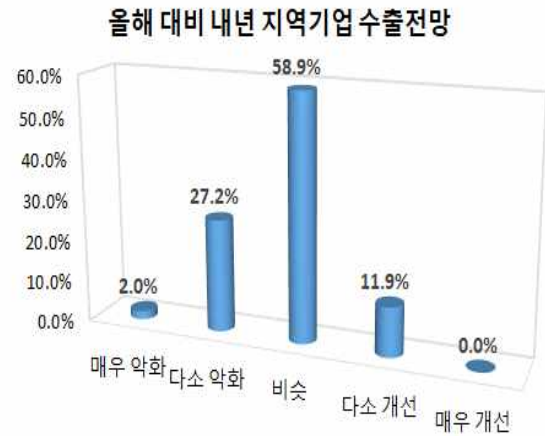
【올해대비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】

구 분	올해보다 늘릴 것	올해와 비슷	올해보다 줄일 것	계
응답업체수(개사)	10	110	134	254
구성비(%)	3.9	43.3	52.8	100

□ 2021년 지역기업 수출전망

○ 내년도 지역기업 수출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봐

-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수출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한 응답이 58.9%(89개사)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는 “다소 악화” 27.2% (41개사), “다소 개선” 11.9% (18개사), “매우 악화” 2.0%(3



- 내년도 수출실적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이 78.3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“환율 변동폭 심화” 8.7%, “기타” 6.5%, “유가·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단가 증가” 4.3%, “중국 등 후발국의 기술추격 심화” 2.2% 순

내년도 수출악화 예상하는 이유

